

간호사의 임상실무지침서 사용현황과 근거중심 임상실무지침서 요구도 조사*

하 미 숙***·박 명 화***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과학적인 간호지식을 실무현장에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환자의 건강회복과 유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간호연구자들이 행한 연구결과는 간호교육과 임상간호현장에 적용되어 간호교육과 간호실무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간호의 우월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간호사로서의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Kim, 2003).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간호연구의 수행과 함께 간호교육과 실무에서 연구결과를 활용 및 확산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는 특성상 직무수행 시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Cho et al., 1995).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료수혜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의료계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첨단기계와 새로운 진단 및 치료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간호사는 계속적으로 간호연구를 통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또한 임상현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실무 능력이 우수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 양성을

위한 간호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Jang, 1999). 그러나 간호사들의 최신 지식에 대한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정보와 실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에 비해(Lee, 1995), 간호연구 및 실무교육을 위한 예산의 확보, 전담 부서와 인력 확보 등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미비하여 임상 환경에서의 연구결과 활용 및 최신 지식에 대한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Ryu, 1992).

이러한 간호현장의 현실에서 최신의 간호 실무에 대한 정보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된 임상실무지침서의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Craig & Smyth, 2002). 임상실무지침서는 임상실무자가 특정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건강관리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개발된 진술들이라고 할 수 있다(Field & Lohr, 1990). 특히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된 근거중심 임상실무지침서(evidence 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는 실무에서의 부적절한 격차를 감소시키고 양질의 근거중심의료를 증진시키며, 임상실무지침서를 바탕으로 한 간호가 환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

* 이 논문은 계명대학교 대학원 학생 학술연구 장학금에 의해 연구되었음.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심혈관중환자실 간호사(교신저자 E-mail: bride04@hanmail.net)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투고일 2006년 2월 3일 심사회의일 2006년 2월 16일 심사완료일 2006년 7월 18일

다(Dalton et al., 1999; Good & Moore, 1996; Kim, 2003; Park, 2004).

미국정신학회(American College of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1999)에서는 양질의 임상실무지침서는 준수사항이나 규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도와 줄 수 있는 내용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임상실무지침서는 전문가의 견해나 참고한 문헌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헌 검토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의 개발방법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기관별로 자체 내에서 개발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임상실무지침서 형식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Park, 2004). 또한 임상실무지침서의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지침서의 보급과 정기적 개정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럽, 북미지역의 국가들과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정책을 바탕으로 근거중심 임상실무지침서를 개발하여 확산 및 실행하고 있다(Craig et al., 2002; DiCenso, Cullem, & Ciliska, 1998; Gandjour et al., 2001). 우리나라에서는 의학계에서 근거중심 임상실무지침서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 간호학의 경우에도 최근 근거중심 실무지침서의 개발 및 실행은 시작단계이며(Gu, 2004), 급성혼돈 환자 관리를 위한 근거중심 간호실무가이드라인(Hwang, 2004), NGCTM에 등재된 근거중심노인 급성통증관리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Son, 2004)가 시행되었으며 근거중심 임상실무지침서의 실제 적용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임상현장에서의 체계적이고도 비판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실무와 최상의 실무의 차이를 좁혀주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기준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된 근거중심의 사용하기 용이한 임상실무지침서의 국내 도입 및 적용이 중요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현장에서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및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요구 및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질 높은 임상실무지침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병원현장에서 기존의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간호사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임상실무지침서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임상실무지침서의 사용현황에 대해 파악한다.

둘째,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를 확인한다.

셋째,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간호사의 요구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임상실무지침서는 임상실무자가 특정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환자관리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개발된 진술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Field & Lohr, 1990), 근거중심 임상실무지침서는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검색,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한 지침을 말한다(Field & Lohr, 1990).

본 연구에서는 병원 및 간호병동에 비치되어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임상실무지침서를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간호사의 사용현황, 태도 및 요구도를 알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구시내에 소재한 종합병원 한 곳을 선정하여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140명(57.9%)과 특수병동(중환자실, 분만실, 신장실, 호스피스병동,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02명(42.1%)으로 총 2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 결과(Gregory, 2004;

Oh et al., 2004; Park, 2005)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1인이 함께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총 30문항이며,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는 5문항,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사용현황(지침서유무, 필요성, 필요상황, 지침서권장, 교육유무, 사용유무, 활용빈도)9문항,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요구도(수정보완영역, 교육형식, 개발단체, 제안사항, 개발영역, 분류방식, 근거중심 간호 및 근거중심 임상실무 지침서에 대한 인식)13문항,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3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는 .97이었다.

4. 자료 분석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WIN 1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간호사의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사용현황, 태도 및 요구도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1-25세가 30.6%, 26-30세가 30.2%로 가장 많은 연령대를 이루었으며, 임상경력은 10년 이상이 33.9%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5.5%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내 근무부서는 일반병동이 57.9%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Table 1>.

2.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일반적 현황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병원에 임상실무지침서의 비치유무에 대해 아는지, 임상실무지침서를 활용하도록 권장한 사람이 있는지,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병원에 임상실무지침서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16명(89.3%),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수가 17명(7.0%), 임상실무지침서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9명

(3.7%)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무지침서를 소개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77명으로 31.8%의 간호사들이 임상실무지침서를 소개받은 적이 없었으며, 임상실무지침서의 활용을 권장하는 사람이 없다고 언급한 간호사의 경우 73명(30.2%)를 차지하였다. 임상실무지침서의 활용을 권장 받은 경우 이를 권장한 사람으로는 수간호사(46.2%), 간호부(28.4%), 동료간호사(20.7%), 간호협회(1.2%)가 있었다.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대상자는 147명(60.7%)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교육경로로는 수간호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경우(41명, 44.1%)가 가장 많았고, 보수 교육시간을 통하여(24명, 25.8%), 개인적으로(10명, 10.8%), 학교에서(9명, 9.7%), 병원의 특강시간을 통하여(5명, 5.4%) 순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r)	21-25	74(30.6)
	26-30	73(30.2)
	31-35	32(13.2)
	36-40	32(13.2)
	≥41	31(12.8)
Year of practice	<1	39(16.1)
	1-4	70(28.9)
	5-9	51(21.1)
	≥10	82(33.9)
Position	Head nurse	11(4.5)
	Charge nurse	24(10.0)
	Staff nurse	207(85.5)
Work place	General ward	140(57.9)
	Intensive care unit	51(21.1)
	Labor & Delivery room	12(5.0)
	Hemodialysis unit	11(4.5)
	Hospice unit	10(4.1)
	Nursery	16(6.6)
	Others	2(0.8)

3. 임상실무지침서의 사용현황

임상실무지침서의 사용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실제로 임상실무지침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에 사용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임상실무지침서를 실제 임상에서 사

<Table 2> The reason why do not use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N=198)*

	Number of response	Percentage
No time during work	77	38.8
Do not reflect the newest information	55	27.7
Apart from clinical practice	33	16.6
Inconvenience to reference	30	15.4
More depends on one's own clinical experience	2	1.0
Bothering	1	0.5

* Multiple response

용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141명, 58.3%)가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101, 41.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무지침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14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임상실무지침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101명을 대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Frequency in use of guideline during work (N=101)

	Number of response	Percentage
1-2 times a year	47	46.5
1-2 times a month	39	38.6
1-2 times a week	11	11.0
Whenever I needed	4	3.9
Everyday	0	0

<Table 4> When to ne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N=242)

	Number of response	Percentage
Want to know exactly about nursing procedure	94	38.8
Educate to training newly nurses	87	36.0
Meet with a new clinical problem	52	21.5
Occurrence of nursing error	5	2.1
Educate a patient	1	0.4
No response	3	1.2

<Table 5> Nurses' attitude about clinical practice guideline (N=101)

		Number of response	Percentage
Do you want to apply clinical practice guideline to patient care?	Strongly agree	4	3.9
	Agree	51	50.5
	Disagree	43	42.5
	Not at all	3	3.1
Can you acquire information that need to patient care by clinical practice guideline?	Strongly agree	7	6.9
	Agree	81	80.2
	Disagree	11	10.9
	Not at all	2	2.0
Current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re convenient to use?	Strongly agree	2	2.0
	Agree	37	36.6
	Disagree	54	53.4
	Not at all	8	8.0

4. 임상실무지침서의 필요성

임상실무지침서가 임상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236명(97.5%)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6명, 2.5%)에 비해 매우 많았다. 임상실무지침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Tabl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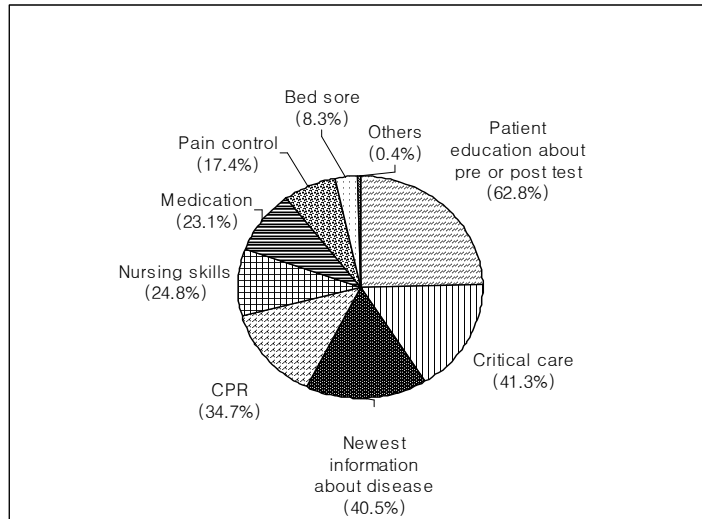
5.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임상실무지침서를 임상에서 실제 사용한다고 응답한 간호사 101명에 대해 기존의 임상실무지침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적용하기를 좋아하는지, 임상실무지침서를 통하여 환자간호에 필요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얻는지, 자신의 간호가 임상실무지침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기존의

임상실무지침서의 구성이 편리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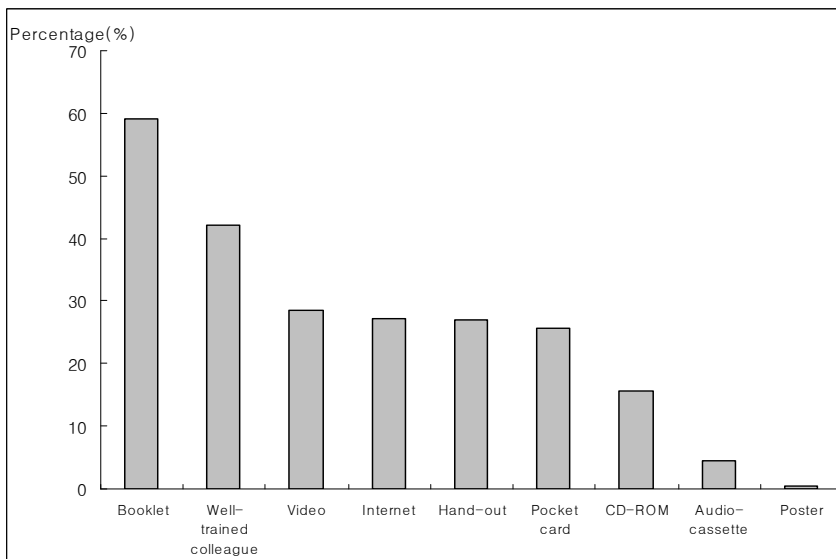
기존 임상실무지침서에서 수정 및 보완하고 싶은 영역을 조사한 결과,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한다(147명, 60.7%)가 가장 많았으며, 임상실무지침서 내용 중 가장 시급하게 개발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응답

6.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요구도



<Figure 1> Area to develop clinical practice guideline urgently (N=613)*

*multiple responses



<Figure 2> Effective nurses education method about clinical practice guideline(N=557)*

*multiple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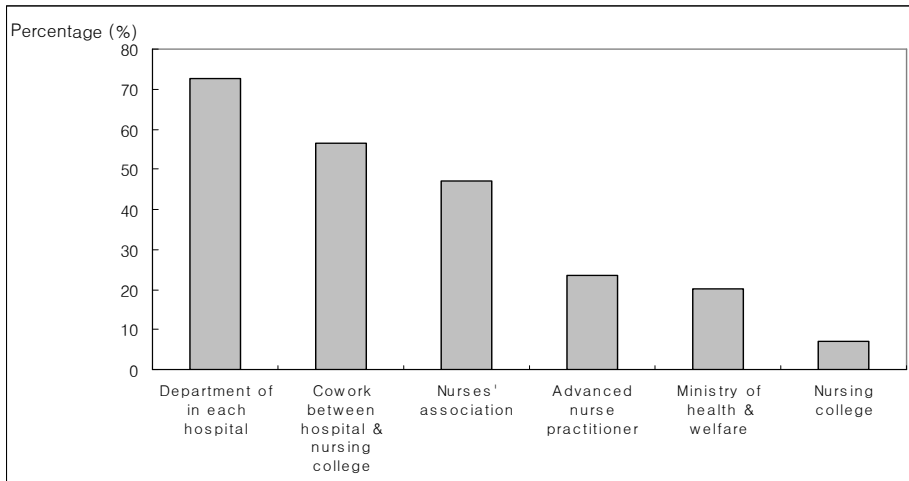
으로는 검사 전·후에 대한 환자교육 자료가 가장 많았다(152명, 62.8%)<Figure 1>.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형식에서 가장 효과적인 형식으로는 소책자(143명, 59.1%), 잘 훈련된 동료(102명, 42.1%), 비디오(69명, 28.5%), 인터넷(66명, 27.3%), 유인물(65명, 26.9%), 포켓카드(62명, 25.6%), CD-ROM(38명, 15.7%), 오디오-카세트(11명, 4.5%), 벽보(1명, 0.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Figure 2>.

또한 임상실무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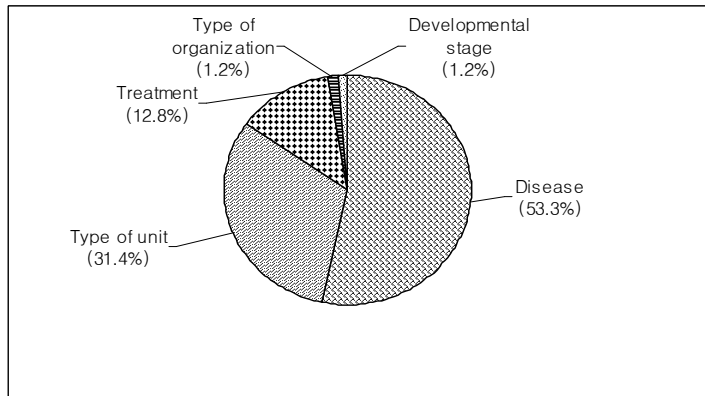
체는 병원간호부(176명, 72.7%)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Figure 3>. 임상실무지침서를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질환별(129명, 53.3%)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Figure 4>.

좀 더 간편하고 유용한 임상실무지침서에 관하여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조사한 결과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한다(152명, 62.8%)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관련 근거자료를 같이 제공하여 해당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Figure 3> Organization which is charge of develop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N=550)*

*multiple responses



<Figure 4> Effective classification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N=242)*

*multiple responses

<Table 6> Suggestion for more usefu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N=708)*

	Number of response	Percentage
Can use any time and any where with portable size	152	62.8
Recommendation with related evidences	130	53.7
Collaborating with electronic nursing record	129	53.3
Easy to search with index	115	47.5
Use on-line	43	17.8
Add more visual data(ex. graphics, pictures, etc)	37	15.3
Others	2	0.8

* multiple responses

(130명, 53.7%)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6>.

교(40명, 69.0%)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7>.

7. 근거중심 간호와 근거중심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인지도

기존의 환자간호 방식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임상실무지침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수정하겠다는 응답(206명, 85.1%)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간호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근거중심간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대상자(97명, 40.1%)보다 들어본 적이 없는 대상자(145명, 59.9%)가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근거중심간호에 대해 정보를 접한 경로는 학교(66명, 71.0%)가 가장 많았다. 또한, 근거중심 임상실무지침서도 들어본 적이 있는 대상자(59명, 24.4%)보다 들어본 적이 없는 대상자(183명, 75.6%)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중심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경로도 학

IV. 논 의

본 연구는 병원현장에서 간호사의 임상실무지침서에 태도 및 사용현황, 요구도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질 높은 임상실무지침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89.3%가 임상실무지침서가 병원에 비치되어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교육여부는 60.7%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법 면에서도 수간호사를 통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가 44.1%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보수교육 및 특강시간과 같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는 30.2%에 불과하여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

<Table 7> Perception of the evidence based nursing and evidence 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N=242)

		Number of Response	Percentage
Have you heard about evidence based nursing?	Yes	97	40.1
	No	145	59.9
Route	Nursing college	66	71.0
	Hospital	14	12.9
	Academic society	11	9.9
	Article	2	2.2
	Internet	2	2.2
	Colleague	2	2.2
Have you heard about evidence 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Yes	59	24.4
	No	183	75.6
Route	Nursing college	40	69.0
	Hospital	10	15.5
	Academic society	5	8.7
	Internet	2	3.4
	Article	1	1.7
	Colleague	1	1.7

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실무지침서의 사용현황을 보면 실제 임상에서 지침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41.7%에 불과했으며, 사용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1년에 1-2회가 46.5%인 것을 보면 임상에서 임상실무지침서의 사용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임상실무지침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는 97.5%가 필요하다고 느껴 임상실무지침서는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질적인 간호를 수행하고 임상 상황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사들이 임상 상황 결정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신뢰하는 자원이 임상실무지침서라는 선행연구 결과(Oh et al., 2004)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임상실무지침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구체적인 경우에는 간호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기 원할 때가 가장 많았고, 신규간호사를 교육 할 때, 새로운 임상문제에 접할 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들이 원칙을 지켜 정확하게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간호행위의 우선순위 결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Suh et al., 2002)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간호행위 지침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임상실무지침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근무 중에 시간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서, 임상과 동떨어져 있어서, 찾아보기 불편하여서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는 간호사들이 근무 중에도 편리하게 볼 수 있고, 또한 체계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최신의 근거를 바탕으로 임상에서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표준화된 임상실무지침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임상실무지침서에서 수정 및 보완하고 싶은 영역을 조사한 결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양질의 임상실무지침서는 중재의 효율성에 대한 근거에 기반을 두어야 하나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임상실무지침서는 문헌 검토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지 않았으며 표준화된 임상실무지침서 형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많다(Park, 2004)라는 견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또한 임상실무지침서 내용 중 가장 시급하게 개발되어야 할 영역은 검사 전·후에 대한 환자교육 자료로 환자에게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질병과정, 각종 진단적 및 치료적 검사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간호전략이라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Suh et al., 2002).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간호사의 가장 효과적인 교육 형식으로는 휴대하기 편리한 소책자가 가장 많았고, 이는 바쁜 근무 중 필요한 경우 늘 가지고 다니며 볼 수 있다는 편리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잘 훈련된 동료, 비디오, 인터넷, 포켓 카드, CD-ROM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근거중심 임상실무지침을 효율적으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opinion leader, change champion 등 병동단위별 교육 및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및 다양한 영상매체와 웹기반교육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무지침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Kim, 1996; Oh et al., 2004)와도 동일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이 임상실무지침서를 개발해야 하는 주체로 생각하는 단체는 병원 간호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학교와 병원이 연계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은 국가적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의적으로 표준화된 기구가 임상실무지침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DiCenso et al., 1998; Gandjour et al., 2001; Kim, 2004)과는 차이가 있는 의견으로 근거중심 임상실무지침에 대한 간호사들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면과 해당 임상환경의 여건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편하고 유용한 임상실무지침서를 위해 제안한 사항을 보면,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임상실무지침서를 보지 않는 가장 많은 이유가 근무 중에 바빠서 보지 않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임상실무지침서를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든다면 사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관련 근거자료를 같이 제공하여 근거를 이해하면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의 근거중심 간호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지만 최상의 연구근거와 간호의 전문성, 환자의 선호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거중심 간호를 기반으로 한 임상실무지침서를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개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표본수를 늘려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임상실무지침서의 사용현황, 태도 및 요구도를 알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병원에 임상실무지침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더 많았다.

둘째, 임상실무지침서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임상실무지침서를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셋째, 임상실무지침서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임상실무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는 간호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기를 원할 때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넷째,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기존의 임상실무지침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존의 임상실무지침서를 활용하기에 편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는 임상실무지침서를 수정 및 보완하고 싶은 영역으로는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한다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임상실무지침서 내용 중 시급하게 개발되어야 할 영역은 검사 전후에 대한 환자교육 자료가 가장 많았다.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형식에서 가장 효과적인 형식으로는 소책자라고 응답하였다. 임상실무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병원간호부가 가장 많았다. 좀 더 간편하고 유용한 임상실무지침서에 관하여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조사한 결과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관련 근거자료를 같이 제공하여 이론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가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하였다.

다섯째, 근거중심 간호 및 근거중심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표본수를 늘려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간호사들의 최신 소견과 근거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므로 근거중심간호 및 근거중심 임상실무지침서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존의 임상실무지침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근거중심간호 임상실무지침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Cho, D. S., Im, S. B., Won, O. S., & Kim, K. A. (1995). The study on nursing practice standard. *Ann Bull Inst Hosp Manage*, 1(1), 41-50.
- Craig, J. V. & Smyth, R. L. (2002). *The evidence-based practice manual for nurses*. New York, NY: Churchill Livingstone.
- Dalton, J. A., Blau, W., Lindley, C., Carlson, J., Youngblood, R., & Greer, S. M. (1999). Changing acute pain management to improve patient outcomes: An educational approach. *J Pain Symptom Manage*, 17(4), 277-287.
- DiCenso, A., Cullum, N., & Ciliska, D. (1998). Implementing evidence-based nursing: Some misconceptions. *EBN Online*, 1(2), 38-39.
- Field, M. J. & Lohr Kn.(Eds.), (1990). *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 to advise the public health service 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Washington D.C.: Direction of a New Agency Press.
- Gandjour, A., Westenhofer, J., Wirth, A., Fuchs, C., & Lanterbach, K. W. (2001). Develop process of an evidence-based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obesity. *Int J Qual Health Care*, 13(4), 325-332.
- Good, M. & Moore, S. M. (1996).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s new source of middle-range theory: Focus on acute pain. *Nurs Outlook*, 44(2), 74-79.
- Gregory, A. (2004). Mental health provider attitudes toward adoption of evidence-based practice: The evidence-based practice attitude scale. *Ment Health Serv Res*, 8(2), 61-74.
- Gu, M. O. (2004). The study trend of evidence-based nursing. *The 23th spring conference* (pp. 25-36). Seoul: Korean Academy Nursing.
- Hwang, J. Y. (2004). *Development of evidence-*

- based nursing practice guideline for acute confusion patient manag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Jang, Y. S. (1999). A study of nursing practical ability that clinical nurses expect to new graduate nurses. *J. of Nursing Query*, 8(2), 25-46.
- Kim, J. A. (1996).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clinical practice using the computer. *J of Nursing Query*, 5(5), 31-47.
- Kim, K. H. (2003). Evidence-based nursing. *J Korean Acad Nurs*, 42(6), 54-63.
- Kim, N. S. (2003). Towards evidence 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in the Korea. *Kor J Care Qual Assur*, 10(2), 238-252.
- Kim, S. Y. (2004). Local adaptation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Kor J Care Qual Assur*, 10(2), 254-265.
- Kim, S. Y. (2001). Evidence-based medicine. *Younsei Medical Education*, 3(1), 1-19.
- Lee, J. W. (1995). *A study on the In-service educa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Oh, E. G., Oh, H. J., & Lee, Y. J. (2004). Nurses' Research Activities and Barriers of Research Utilization. *J Korean Acad Nurs*, 34(5), 838-848.
- Oh, P. J., Kim, I. O., Shin, S. R., & Jung, H. K. (2004). Development of web-based multimedia content for a physical examination. *J Korean Acad Nurs*, 34(6), 994-1003.
- Park, M. H. (2004). Development of evidence based nursing practice guideline document model for electronic distribution. *J Kor Soc Med informatics*, 10(2), 147-159.
- Park, H. S. (2005). *Nurses' approach to evidence based Nursing and barriers of util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Ryu, G. H. (1992).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hospital nurse's acceptance of inservice education and nursing performa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eneral hospital nurse in Deaej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Suh, M. J., Son, H. M., Kang, H. S., Kown, S. B., Kim, J. H., Park, Y. S., Lee, E. H., Im, N. Y., Cho, K. S., & Chi, S. A. (2002). The Nurses'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Adult Nurs*, 14(4), 564-572.
- Son, H. J. (2004). *The applicability of evidence-based guideline for aged acute pain management recorded NGC™ in domest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Abstract -

Nurses' Usage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and Demand of Evidence 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Ha, Mi Suk*·Park, Myong Hw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the baseline data for developing a systematic and high quality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by exploring how nurses utilize clinical guidelines and what they need for. **Method:** This study has been done with 242 nurses of a university hospital in Daegu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was developed by research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Data analysis was done with SPSS 11.0 Program. **Results:** Nurses felt that clinical guidelines were not sufficiently disseminated to update their clinical knowledge education.

* R. N.,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Nurses showed the strong demand for develop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with the newest and systematic evidence. However, a relatively low number of nurses knew evidence-based nursing and evidence-based clinical guidelines.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for evidence-based nursing and an evidence-based nurs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nurses and to explore the strategies for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o solve the urgent and frequent clinical problems.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guideline,
Evidence-Based, Nurse